

2025. 3. 7.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3월 6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경제실 경제정책과

서울경제진흥원(SBA)

사진없음 ☐ 사진있음 ☒ 쪽수 : 6매

경제정책과장	이병철	2133-5210
혁신기술팀장	박지은	2133-5226
담 당 자	김지영	2133-5223
R&D정책팀장	김기범	2222-3830
담 당 자	임도열	2222-3831

서울시, 신성장산업 R&D 투자 확대... 글로벌 AI 혁신도시로 거듭난다

- 올해 '서울형 R&D 지원' 410억 원 투입... 기술 발굴부터 시장진출까지 전과정 지원
- ▲신성장산업 육성 ▲R&D기업 성장 지원 ▲기술사업화·약자기술 전파, 분야별 지원
- 서울형 R&D 지원, 작년까지 기업매출 6천억 원(누적) 달성... 13일(목) 사업설명회
- 시 "서울이 '글로벌 AI 혁신도시' 거듭날 수 있도록 R&D 분야 전폭 지원해 나갈 것"

☐ 서울시는 인공지능(AI)을 필두로 한 글로벌 기술 대전환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자 올해 '서울형 R&D 지원'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투입, 혁신 기술 발굴부터 개발·실증·시장진출까지 전 과정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 시는 여기에 전년(367억 원) 대비 약 12% 늘어난 4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.

-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'서울형 R&D 지원사업'은 미래 선도산업 선점 및 경제 활성화,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R&D 분야 서울시 대표 정책이다.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'18년부터는 AI·바이오·양자기술·로봇·핀테크·창조산업 등 6대 신성장산업 기술개발과 기업 성장 및 기술 실증 R&D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해왔다.

□ 시는 올해 저비용·고성능 AI 모델 등장을 계기로 초기 기술개발 (Pre-R&D)~기업성장 R&D~테스트베드(Post-R&D)까지, R&D 전 분야에 AI 투자를 확대해 'AI 3대 강국 도약'의 초석을 놓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각오다.

- 특히 초기 기술개발 과제를 ▲인공지능(AI) 및 AI 융합기술 (AI+X) 과제로 집중 선정 ▲AI R&D 예산 증액(30억 원→ 50억 원) ▲민간투자 및 기술보증기금 연계 R&D에서 AI 과제 30% 이상 선정 등 '25년도 선발 과제 188개 중 절반 이상을 'AI 및 AI 융합기술'로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<기업 자율성 제고위한 'R&D 관리지침' 정비, 서울형 R&D 졸업기업 위한 정책 사다리도>

□ R&D 수행 과정에서 기업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'R&D 관리지침'을 정비하고 규제철폐를 위한 신규 R&D도 추진한다. 또 국내·외 시장 진출 시 직면하는 인·허가 규제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규제 과제 발굴을 위한 기업 소통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.

- ▲서울형 R&D 수행 시 연구 활동 제한을 최소화하고 우수 연구 인력이 유입되도록 규제도 정비한다. ▲규제 샌드박스 기간이 종료된 기술을 시장에 내놓을 때 성능 개선, 안전관리 등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'규제돌파 R&D' 과제도 신규로 추진한다.

□ 아울러 사업화 자금 부족, 국내·외 시장 개척 등 서울형 R&D 종료 후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맞춤형 정책 사다리도 놓는다.

- 그 밖에 ▲신성장산업 분야 유망 기술 보유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‘글로벌 R&D’ ▲우수 기술 글로벌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‘테스트베드 해외실증 시범사업’ ▲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 컨설팅 ▲유망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.

<▲신성장산업 육성 ▲R&D기업 성장 지원 ▲기술사업화약자기술 전파, 총 410억원 투입>

- 먼저 세계적으로 근본혁신기술(딥테크)이 산업을 주도하고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 서울수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▲6대 신성장산업 육성에 195억 원을 투입한다.

- 바이오·의료 제품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인허가 상담회를 정례화하고,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품질 인증 및 개발 후 AI 모델 신뢰성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도 제공한다. 또 서울로봇쇼(로봇), 엔터테크서밋 2025(창조산업) 등 국내외 행사 참가도 지원한다.

- 다음으로 ▲R&D 스타기업 배출을 위한 기업 성장을 전폭 지원(78억 원)한다. 혁신기술 스타트업의 등용문이 된 ‘서울혁신챌린지’를 통해 경쟁력 있는 초기 기술이 핵심 기술로 도약할 수 있게끔 돕고, R&D 투자와 자금 보증을 연계하는 ‘기술보증기금 연계 R&D 사업’을 신설,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지원한다.

-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한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1단계 R&D 연구기획 특례보증(기보, 2억원), 2단계 서울형 R&D 지원(市, 최대 4억원), 3단계 사업화 자금 보증(기보, 최대 30억원) 등 최대 36억원까지 보증·지원받을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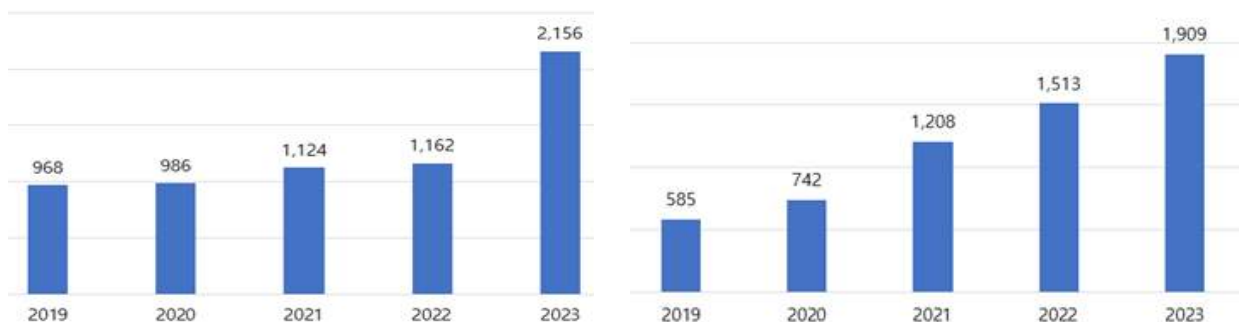
□ 또 ‘민간투자연계 R&D(서울형 TIPS)’를 통해서도 투자사가 투자(또는 확약)한 과제를 선발해 기술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지원, 민간 펀딩 및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기업을 빠르게 성장시킨다.

□ 마지막으로 ▲기술사업화 및 약자기술 전파에 102억 원을 지원한다. ‘테스트베드 서울’을 통해 혁신 기술 실증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다양한 실증기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기준도 마련한다. ‘약자기술 R&D’는 전년보다 공모 과제 수를 늘려 보다 많은 약자 기술기업이 기술개발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○ 또 ‘23년 서울시와 조달청이 체결한 ‘혁신제품 지정 시 일부 평가 단계 면제 협약’을 활용해 약자기술 제품의 B2G 진입도 지원한다.

<‘서울형 R&D 지원’ 기업매출 6천억 원(누적)·일자리 6천 개 창출… 3.13.(목) 사업 설명회>

□ ‘서울형 R&D 지원’은 R&D에 참여한 중소·벤처·창업기업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다. 최근 5년간 사업에 참여한 총 884개의 과제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, 기업 매출은 누적 6,396억 원, 일자리는 5,957개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.



[매출] 2,156억원, 전년대비 994억원 증가(85%) [고용] 1,909명, 전년대비 396명 증가(26%)

<최근 5년간 매출과 고용 추이(‘19~‘23년)>

- 또 '24년 한 해만 R&D 기업 중 7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으며, '25년 CES에서는 14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. 이외에도 국내·외 투자유치 및 기술수출 성과까지 이루는 등 R&D 졸업기업이 다방면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.

- '서울형 R&D 지원사업'은 서울 소재 중소·벤처·창업기업 중심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13일(목) 세텍(SETEC)에서 열리는 '서울형 R&D 지원사업 통합설명회' 또는 '서울경제진흥원 R&D지원센터(seoul.rnbd.kr)'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-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“인공지능을 비롯한 딥테크 기술은 이제 세계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술”이라며 “서울이 기술 경쟁력을 갖춘 ‘글로벌 AI 혁신도시’로 거듭나 수많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R&D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동행바람
한강시민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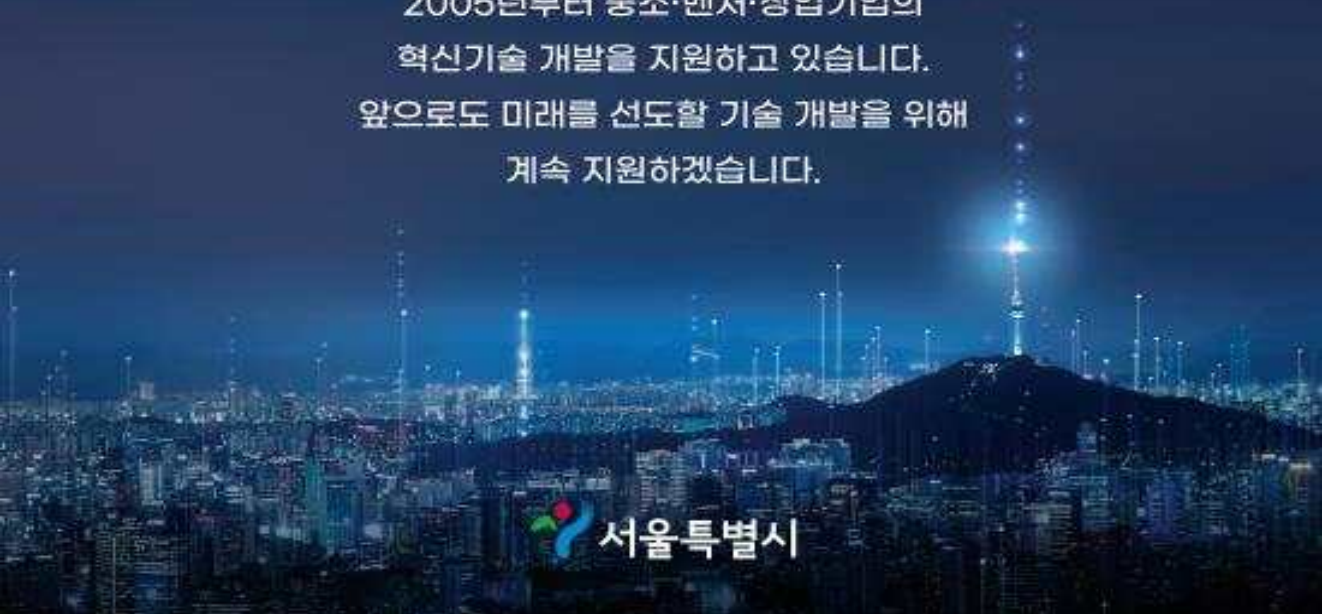
SEOUL
MY SOUL

미래를 밝히는 혁신기술 서울형 R&D 지원



Ai Robot Bio Quantum

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은
2005년부터 중소·벤처·창업기업의
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앞으로도 미래를 선도할 기술 개발을 위해
계속 지원하겠습니다.



서울특별시